

한·중 수교 30주년 특별기획

재한 동포·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다(多)가치포럼 2차 토론회

# 韩中关系的 回顾与展望

2022년 6월 25일 14시

구로구가족센터

(구로구 우마2길 35 가족통합지원센터 2층)

주제발표

우수근(한중글로벌협회장)

이국봉(중국전략연구소장)

주제토론

김정룡(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전춘화(홍익대학교 상경학부 조교수)

좌장

박동찬(이주인권 활동가)

한	회
중	고
관	와
계	전
	망

주최

다가치포럼

주관

구로문화재단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후원

(사)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LC TECH KOREA

협찬

(사)조각보 민들레예술단 민들레사랑회 (사)이주민센터 친구







# 목차

<b>01 행사순서</b>	<b>07</b>
----------------	-----------

<b>02 인사말</b>	<b>11</b>
---------------	-----------

김동훈,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장	13
--------------------	----

류재순, 前)재한동포문인협회장	17
------------------	----

<b>03 주제발표</b>	<b>21</b>
----------------	-----------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장	23
---------------	----

이국봉, 중국전략연구소장	31
---------------	----

<b>04 주제를론</b>	<b>41</b>
----------------	-----------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43
-------------------	----

전춘화, 흥익대학교 상경학부 조교수	49
---------------------	----



01

2022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행사순서





# 2022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개회 및 내빈소개
14:05 – 14:20	인사말
14:20 – 14:30	포럼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14:30 – 15:00	주제발표 ①
15:00 – 15:30	주제발표 ②
15:30 – 16:5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16:50 – 17:00	폐회

- 개회사 김동훈(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장)
- 환영사 허정숙(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축 사 류재순(前 재한동포문인협회장)
  
- 좌 장 박동찬(이주인권 활동가)
- 발 제 우수근(한중글로벌협회장)  
이국봉(중국전략연구소장)
- 토 론 김정룡(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전춘화(홍익대학교 상경학부 조교수)



02

2022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인사말



개회사  
-  
김동훈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 김동훈 센터장입니다.  
다가치포럼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아 좋은 말씀을 해주실 두 분 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님과 우린하나중국전략연구소 이국봉 소장, 토론을 맡아주신 다가치포럼 김정룡 운영위원장님과 전춘화 운영위원님, 좌장을 맡아준 다가치포럼의 젊은 활동가 박동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늘 다가치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재한동포문인협회 류재순 전 회장님과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공간을 흔쾌히 내어주신 구로구가족센터 정종운 센터장님과 김이창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서울서남권 문화다양성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다가치포럼이 태동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가 확장되던 시점에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소시민들이 모여 화합과 공생의 삶을 찾기 위해 '다가치포럼'이라는 모임을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루고자 다가치포럼 운영진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차별과 혐오 대응방안, 이주배경아동 교육, 이주여성의 삶, 동포 정책 개선과제, 기초질서 문제, 정체성 문

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와 지역 현장 주민들이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대체로 거시적 사안들을 다루느라 지역사회 현장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지 못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다가서지 못했나 하는 성찰도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이 안정되고 동포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지역의 소소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동포사회에 당면한 과제들은 너무나 거시적인 큰 문제들로 막혀있기에 거시적 문제에 우선 눈을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가치포럼이 지역사회에 소소한 문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거시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어느 방향이든 다가치포럼은 이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함께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 발전보다 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가는 내실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다가치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럼이 시작한 지 이제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 하도록 한중교류는 다양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시름하고 있고 한중관계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건강보험정책은 동포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재난지원금에도 차별적으로 배제되는 등 제도적 차별로 더더욱 힘든 시련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하였고, 선도적인 방역활동으로 지역사회 방역에 앞장서는 모범 시민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방역 정책의 최일선에 동포들 또한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한중수교 후 30년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현장에 계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중수교 3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한중교류가 가장 빈번한 이 서남권 지역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오늘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한중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센터장 김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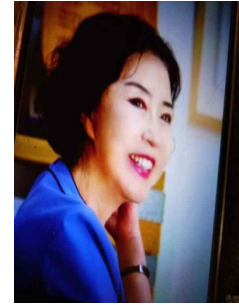




축사  
-  
류재순

前)  
재한동포  
문인협회  
회장

다가치포럼은  
지금까지 쪽 명실상부한 소명을 잘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간의 가교역할과  
동포사회를 더욱 각성있는 단체로  
이끌어 가리란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 동포사회라는 이 거대한 단체를 형성한지도 이미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우리 동포사회는 많은 불안과 방황, 몸부림 등 갈등에 부대끼며 여러 모로의 모색과 출로를 위한 단체들이 출범하였습니다. 참대나무 씨앗이 땅에 뿌려져도 5년이란 긴 시간을 아무 소식 없이 묻혀있다 첫 마디가 싹 트기 시작하면 그 마디 사이가 무려 30m까지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가치포럼은 한중 수교에서 뿌려진 씨앗이 동포사회라는 특수 토질에 묻혀 오랜 기간에 자신의 소명감을 배양하다 2017년에 김정룡 대표님의 창의로 그 첫 싹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지성인들과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혜안을 모색하며 우리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치포럼은 그때의 새싹이 이미 15마디를 거둬들이면서 놀랍게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룡 대표님의 정론성적 칼럼을 읽기 좋아합니다. 그의 비교적 박학한 역사 지식과 현 사회 민감한 부분에 대한 주목과 통찰력, 고민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유들은 한중

양국 간의 가교적 역할을 위하여 우리 동포사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는 대표이기에 다가치포럼은 지금까지 쪽 명실상부한 소명을 잘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 간의 가교역할과 동포사회를 더욱 각성 있는 단체로 이끌어 가리란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2022년 6월

前)재한동포문인협회 회장 류재순





03

2022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발표



---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향후 한중 관계 전망**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의 동향 등을 토대로-**

---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장

##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향후 한중 관계 전망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의 동향 등을 토대로-1)

### 들어가며

#### 1.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 1) 한국 측 평가
- 2) 중국 측 평가

#### 2. 2022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국 인식

### 나오며

참고 자료)) 중국 외교의 지향 방향

### 들어가며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협력 파트너이다. 양국 경제 무역 관계는 상호 공동 노력 하에 급속 발전, 어느덧 한중 양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로 부상함.

--실제로 한중 양국 교역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상호 투자액은 누적 1,000억 달러를 초과했음.

--아울러,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으로서, 양국 사이에는 경제·무역·투자·협력을 더더욱 심화시켜 나갈 여력이 아직도 적지 않은 상태임.

1) 본 발표문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국가 안보 관련 복수의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중국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임. 아울러 발표문 말미의 참고 자료 또한, 중국 측에서 제시한 "중국 외교의 지향 방향"임. 이 역시 우리의 호불호(好不好)에 앞서, 상대방의 관점을 냉철 & 이성적 관점에서 인식, 그에 적합한 대처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미에서 게재함.



## 1.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 1) 한국 측 평가: 환영

- 한미 동맹 강화 토대 마련
- 한미일 협력 강화 토대 마련
- 국가 안보 강화 토대 마련 등...

### 2) 중국 측 평가: 우려

-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관련
  - 중국, 최근 미국이 제기한 "IPEF"는 무역과 협력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배척,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 "IPEF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한미 관계를 기존의 단일 동맹에서 경제동맹,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미국 쪽으로 한층 더 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이로 인해 미국의 압박에 밀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대국 평행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한미 공동선언문에서의 대만해협 언급 관련
  - 한미 공동선언문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 ☞ "대만해협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로써 잘 처리하지 못하면 미중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게 된다면, 미래의 한중 관계는 반드시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2. 2022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국 인식

- 중국 인민일보, 환구시보, 관찰자망, 평빠이 신문 등의 인터뷰 질문....
- 사드 때와는 사뭇 다른 중국 국내 분위기....
- ☞ “그래도, 관계 악화 방지책은 없을까...”
- 중국,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지도자의 상호 공감대를 토대로 무역투자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심화 희망...”
- 강경 일변도는 중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

## 나오며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외교” 절실
-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돌고래 외교” 절실

## 참고 자료)) 중국 외교의 지향 방향

### (1) <인류 운명공동체> 추구

- 중국은 동 개념에서 출발해 협력, 상생, 지속 가능한 새로운 안보관 추구.
- 인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 왔고, 각국의 국익 또한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평화를 추구하고 윈윈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가피한 조류이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정세에 직면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기의 전염병에 대처하며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여정에 각국은 마땅히 한 배를 탄 심정으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역세계화와 패권주의, 강권정치가 대두되면서,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새로운 과제와 도전 등에 직면하고 있다.
- 인류의 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책임은 각국 모두에게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당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골든 키'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토대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지속적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 인류 운명공동체 구현, 다자주의 창도,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게임 등과 같은 낡고 구태한 사고 및 약육강식의 정글법칙 지양, 협력으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지향한다. 중국은 무력을 쓰거나 무력으로 위협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며 각국이 함께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세계의 장기적인 평화를 실현해 나가길 바라 마지 않는다.

## (2) 유엔 및 국제법 준수 및 수호

-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및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의 확고한 수호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또한 확고히 수호한다.
- 유엔 및 국제법 위에 위치한 듯한 특정 국가의 행위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군림시키다시피 하면서 자국 국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국제 질서의 최대 혼란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

## (3) 글로벌 사회의 미래는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 중국은, 글로벌 사안에 대해 글로벌 각국과 함께 상의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우리 모두의 장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국가와 국가 간은 평등해야 하고 상호 양해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국은 대항이 아닌 대화, 좁고 편협한 동맹의 틀이 아닌 보다 더 개방되고 폭넓은 글로벌 협력과 교류 협력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마땅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 등은 국제 사회의 개방 협력과 상호 이익이라는 원원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제안 등은 동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타적인 차별과 대립 등의 조장보다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기존 메커니즘을 훼손하고 분열하는 대신 각국의 보다 더 긴밀한 협력과 단합을 촉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인권 등에 대하여

-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 등은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다.
- 민주와 인권은 모두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므로 각국의 실정과 국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각국에 적합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실, 전 세계에는 어느 나라에나 모두 맞는 단 하나의 정답 같은 모델은 없다. 이를 고려할 때, 그 어떤 나라도 민주와 인권 등을 독점할 권리가 없다. 인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보다 더 겸허하고 폭넓은 자세에서 우리와 다른 타국들의 모습 등도 인정하며 그 속에서 구동존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





---

**한·중 수교 30주년 :  
'국정(国情)'의 이해와  
한·중 양국의 소통강화를 위한 해법**

---

**이국봉**

중국전략연구소장

## 한·중 수교 30주년: '국정(国情)'의 이해와 한·중 양국의 소통강화를 위한 해법

1. '우리동포다가치포럼'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해교통대에서 2010년부터 근무를 했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왔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세심한 배려와 긴밀한 연락 관계에 대하여 항상 깊이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주 우린하나 중국전략연구소 소장, 인천의 송도에 소재하고 있는 'HR컴퍼니' 공동대표 및 민화협 정책위원(정치외교분과)등을 맡고 있습니다.

2. 오늘 회의에서, 저의 강연제목은 “한·중 수교 30주년: '국정(国情)'의 이해와 한·중 양국의 소통강화를 위한 해법”입니다. 즉,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어떻게 하면 양국이 상호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탐색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본 강연에서는 “왜 한중 양국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가?” 특히, “양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유교문화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회인데 왜 소통이 잘 되지 않는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모색합니다.

3. 먼저, 강연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국정(国情)'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중 양국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본질적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한자문화권'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교류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과 뜻이 통할 수 있는 것임. 이것이 곧 '소통'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뜻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뜻 글자인 '한자(漢字)'에서 옵니다. 한자를 잘 알아야 하는 까닭.

그런데 한국에서 '국정'이란 말을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정(國情)'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정이라 하면 국가의 정사를 가리키는 '국정(國政)'이란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정'이란 소리를 말할 때, 중국에선 '국정(國情)'을 말하고, 한국은 '국정(國政)'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그 자체로, '동문서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중국에서 말하는 '국정(國情)'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 한자 사전을 열어보고 뜻을 구할까요? 십중팔구, 찾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되레 자신이 알고 있는 뜻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로 손 꼽히는, 상해교통대(上海交通大學,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를 우리나라 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번뜻 되돌아오는 반응이 '교통(transportation)'의 의미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해교통대 교수? 아, 그러면 교통관련 분야에 전문가이구만? 실제로 그런가요?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래 '교통(交通)'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쓰는 말인데, 바로 철도, 도로 등에 국한하여 교통의 의미를 한정하여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실제로 한국철도대학과 합병하여 만든 국립대학으로 '한국교통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영어 명칭에 바로 'transportation'을 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통의 의미를 우리식 해석을 통하여, 도로, 철도 등의 의미로 한정하여 교통의 의미를 쓰고, 또 그에 해당하는 한국교통대학에 빗대어 상해교통대학을 이해하니 이런 misunderstanding 즉, 오해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상해교통대학의 '교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역 태괘에 보면 "天地交而萬物通"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면 만물이 통한다고 해 이 세상 모든 '物'사이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ransportation으로

한정해 말하는 교통, 도로, 철도의 의미는 그 소통의 의미에서 극히 제한된 하나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죠. 하늘과 땅, 물리적으로 서로 닿을 수 없는 극과 극의 경우에도 서로 사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늘은 땅에 비를 내리고, 빛을 비춰서 곡식을 여물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식량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으니 만물이 그로부터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적인 예를 통해서 본, 한국과 중국에서 말하는 '교통'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 특히 한중 양국의 소통과 관련한 문제에서 중요한 점을 말해줍니다. 첫째, 한국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중국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이 실제 말하는 그 본의와 관계 없이 한국식으로 중국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곧 상호 misunderstanding 즉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그 교통 의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에, 주역의 태괘와 같은 고전의 진의를 찾아서 교통의 본 뜻을 찾기 보다는, 영어의 transportation에 의존하여 '교통'의 의미를 확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원래 중국의 한자의 뜻마저도 미국식 영어에 깊이 의존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본 뜻을 한자에서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본 뜻 그것은 한자와 그 어원의 출처인 고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예요.

즉,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방식으로 중국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의 것과 그 방식을 차용하여 중국의 것을 이해하려 하면서 그것이 곧 중국의 본 뜻, 진정한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물론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식 또한 얼마든지 활용하고 나아가 더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오직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나아가 그것이 중국의 진정한 뜻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실제 중국의 본 뜻에 부합하지 않는 즉, '사실(事實; fact)'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볼게요. **둘째**, '국정(國情)'의 의미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국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情)'이란 글자를 떠올리면, '따뜻한 정'을 주고 받는 초코파이 광고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따뜻한 정' 희로애락을 뜻할 수 있는 감정의 '정'과 국가, 국사를 뜻하는 '국'을 함께 쓴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여기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유교문화와도 관계가 있어요.

흔히, 한국과 중국은 유교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국의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유불도 문화를 한국에 본토화 시켰고, 그것을 다시 일본에도 전승시켜줬고, 조선시대에는 송나라 주희의 성리학을 가져다가 국가의 정치이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유교문화도 있지만, 도가(도교)의 문화도 꽤 영향이 큼니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 한국은 바로 조선시대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주자 중심의 성리학의 영향이 제일 크며, 그 외에 것은 이단으로 배척해서 도가(도교)는 물론 불교 또한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정(情)'이란 얘기를 하는데 있어 유교적 관점에서는 희로애락 감정을 뜻하는 즉 성즉리의 '성'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情'을 감정의 요소 혹은 정감적 요소로서 말을 하지만,

도가(도교)에서는 '情'에 대한 뜻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도가의 가장 큰 스승은 아시다시피 '노장(老庄)'입니다. 그 노자와 장자 가운데 장자와 관련된 한 가지 놀라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장자의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인 지식인 혜자가 장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이유는 장자의 아내가 그만 죽었다는 부고를 듣고, 친구인 장자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 생각에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숨이 끊어 통곡으로 온 방이 떠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온 방은 세숫대야 악기

소리와 장자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혜자는 비록 친한 친구인 장자지만 그를 나무라고 탓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찌 자기와 함께 평생을 같이 정을 나눈 즉 동고동락 희로애락을 함께 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상황에서 눈물은 고사하고 이 해괴망측하게 세숫대야를 북으로 삼아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말입니다! 장자 넌 '情'도 없나? 여기서 말하는 정은 분명 희로애락 동고동락을 뜻하는 사람 본연의 정감적 요소. 바로 정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것이 걸작입니다. 나라고 왜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어차피 사람 또한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것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命'인 것. 그 명 앞에서 통곡을 한다고 한들 그 명이 바뀌는 것인가? 명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네. 여기서 우린 또 하나의 정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정은 분명 감정적 요소로서 인간의 정감적 측면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정(實情)'의 '정'의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운다고 하고 가슴을 아파한다고 해도 이미 명이 다한 것.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 또한 실제적 정황으로서 '정'입니다. '따뜻한 정'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실제 정황으로서 '情'이 또 있다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은 희로애락 동고동락 인간 본연 감정의 요소를 넘어서는 '실제 정황'으로서 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적 요소를 가지고 '국정(国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죠. 중국에서 '국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국가의 실정'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실정(the condition of a country), 가령 인구 14억, 56개 민족, 기후, 지역, 역사 등등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기본적 특징을 말하며, 즉, 이러한 기본적 또 객관적 요소를 가진 상태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섭할 때 이런 요소에 기반하여 타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는, 사실 어떻게 해서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덩샤오핑 시대의 '사회주의시장경제'로, 다시 장쩌민(삼개대표), 후진타도 (화해사회 과학발전관) 그리고 시진핑 시대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 그 누구도 쉽게 부인하기 힘든 명실상부한 G2로서 중국의 글로벌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시도들이 자기의 부단한 개혁적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특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중국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국이 아닌 독일의 마르크스 사상 또한 자신의 국정철학으로 삼을 수 있으며,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화 된 마르크스주의' 혹은 '마르크스의 중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어떨까? 이것이 비단 이데올로기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불교사상이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의 불교, 대표적인 선종의 탄생 등에서도 보이듯 그야말로 중국 문화가 외부문화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재창조화 하는 능력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중국의 '국정(国情)'을 논할 때,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어떠한가?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가난했던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대전환에 성공을 했으며, 이런 산업화의 기초 위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도 실현한 역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삼성전자 등 초일류 기업의 등장으로 세계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날로 확장되는 상황을 맞이해 날로 서방세계에서 한국과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한 시도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동양의 전통적 사상적 기초 위에서 서양의 문화도 흡수해 그 문화적 공감능력과 우수성에 세계가 날로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국정의 관점에서 말을 한다

면, 3권 분립의 민주적 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이라는 제도적 기초 위에서, 한국인 뜨거운 열정 즉, '따뜻한 정'을 뜻하는 정감적 요소로서 감정이 한국의 정치경제의 국력이 뒷받침하는 토대 위에, 이것이 점차 세계에 호응하며 뻗어나가는 즉, '공감(empathy)'력 확대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열정적인 '情'이 국가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타국의 세계인의 '情'으로 직접 전달이 되고 감흥을 주고 소통되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사회의 특징을 국정(國情)의 또 다른 측면, 즉 국정 운영의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국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지도자에 대한 선호 현상이 유권자로서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성적 판단만큼 어찌면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정감적 요소로서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즉, 이렇듯 역동적 한국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선출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말로 '여론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情'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과 안정성, 지속성 유지하는 데에 때론 심각한 곤경을 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교'분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성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일부 국민의 감성적 입장과 태도, 때로는 무분별하게 '한 쪽으로 쏠리는 선동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점들이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외교정책에 또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국정운영의 방식이자,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이런 정감적 요소를 직접 여론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문화정책의 분야에서 '한류'와 같은 문화 창작물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부분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한·중 양국의 소통이 오히려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정리하면, '국정(國情)'의 관점에서 한·중 양국 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중국은 '실정의 측면'에서 국'情'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 역동성의 측면인 감정의 측면에서 국'情'을 이해한다. 즉, 중국의 정과 한국의 정이 비록 같은 글자를 써 표면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작 '그 뜻'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한·중 양국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

2022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토론



---

##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재한조선족

(한중관계에 사라져야 할 걸림돌 -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져온  
일부 한국인의 왜곡된 피해의식)

---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재한조선족

(한중관계에 사라져야 할 걸림돌 -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져온 일부 한국인의 왜곡된 피해의식)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고 유교문화와 한문을 공통분모로 하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왔다. 2천 년 전 한문이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한문 중심으로 문자생활을 영위해 왔고, 문자와 동시에 유입된 유학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기나긴 역사과정에서 한반도는 중국을 문화적으로 대중화로 숭배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배척하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중국을 싫어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피해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은 한문해석과 중국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왜곡된 한문해석

한국인의 왜곡된 한문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의식적인 왜곡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왜곡이다.

### 무의식적인 왜곡

무의식적인 왜곡은 한문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무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車到山前必有路'는 수레가 산 밑에 이르면 반드시 길이 나지는 법이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수레가 산에 이르려면 반드시 길이 있어야 한다.'로 번역한다면 이는 한문 이해 부족이다. <삼국유사> 미륵 편에 '예의풍교불류어상(禮儀風教不類於常)'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병도 및 이후의 역자들이 모두 '예의와 풍교가 남달리 뛰어났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예의풍교가 유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므로 이것은 이해부족에 속한다.

## 의도적인 왜곡

‘만절필동(萬折必東)’의 일파만파

노영민 전 주중한국대사께서 부임되어 가자 중국인민대회당에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보수 언론들에서 사대주의 끝판왕이라느니 심지어 매국노라고 공격했다.

‘만절필동’의 유래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물의 덕성을 묻자 대답에서 언급된 것이다. 본의는 황하가 만 번이나 방향을 바꾸면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노영민 대사는 ‘한중 양국이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여러모로 곡절이 많았지만 지향점이 같아 함께 미래를 창조해가자’는 의미로 쓴 것인데 국내 보수들이 매국노라고 공격한 데는 그럴만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충북 화양동에 <만동묘(萬東廟)>라는 곳이 있다. 사대부 대부격인 송시열이 유언을 남겼고 제자 권상하가 1703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파병한 신종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을 제사지내는 사당이다. 1644년 명나라가 이미 망하고 사라졌는데도 명나라 황제를 기리는 사당을 세웠으니 중화에 대한 사대주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었다.

경기 가평 소재 조종암(朝宗巖)에 중국 명나라를 향한 숭배와 감사를 담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 선조(宣祖) 대왕의 글씨 ‘만절필동(萬折必東)’이 있다.

이와 같이 ‘만절필동’은 조선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현시대 대한민국 관리들이 ‘만절필동’을 쓰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역시 오랫동안 싸여온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노영민 대사의 ‘공창미래’에서 ‘共’은 함께 한다는 뜻인데 ‘공산당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산당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썼다고 매도하는 것은 피해의식이 빚어낸 건강부회이다.

3년 전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본인이 직접 쓰신 휘호 족자를 미국 하원의장에게 선물했는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왜 미국에 가서까지 난리인가’는 물매를 맞았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고려몽동이(高麗棒子)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이 조선민족(한민족)을 지칭하는 별명이다.

고려몽동이(高麗棒子)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고구려 때 수나라와 당나라가 여러 차례 침공했는데 그 때 고구려가 몽둥이를 잘 써 혼란 속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조선 부녀들이 하도 방치 질 잘한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 일각에서는 고려몽동이(高麗棒子)란 말에서 몽둥이는 물리적인 몽둥이가 아니라 상대 집단이 가난하거나 못마땅해 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란 설. 예를 들어 가난뱅이를 '窮棒子'라고 한다. 19세기 중엽부터 산동인과 하남인 및 조선인이 관동(關東, 동북삼성)에 진출 러시가 있었는데 그 때 산동인은 조선인을 고려몽동이(高麗棒子), 조선인은 산동인을 산동몽동이(山東棒子), 후에 하남인이 오자 산동인은 하남인을 '河南棒子'라고 불렀다.

한국 00보수 언론인은 고려몽동이(高麗棒子)를 '몽둥이로 때려죽일 고려인'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전형적인 건강부회의 표현이며 이는 피해의식이 심각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 정서적인 피해의식

세상에서 미국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북한이고 세상에서 중국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인은 흔히 중국을 우리네 60~70년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간주한다. 한강기적이 가져온 국민의 자부심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을 우습게 보는 것에는 과거 중국의 문화 영향까지 말살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양국 간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이른바 한복논란, 김치 논란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조선족은 한국인보다 한복 사랑이 훨씬 강하다. 가문의 경사 때는 물론이고 산재지역에서는 집단 행사 때마다 한복을 착용하고 참석한다. 또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거국적인 행사에 55개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민족복장을 착용하고 나선다. 지난 겨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한복 논란은 순전히 한국인의 피해의식이 낳은 논란이다. 김치 논란도 어이없는 주장이 등장하여 울어야 할 지 웃어야 할 지 참으로 한심하다. 중국에서 한족과 이웃하고 사는 조선족은 김장철에

한족에게 김치를 주면 한족은 명절에 손수 빚은 만두를 선물한다. 한족은 조선족 김치를 중국말로 '파아오차이(泡菜)'라고 말한다. 이것을 한국 00교수가 왜 중국인은 우리 김치를 자기네 절임배추를 뜻하는 '파아오차이(泡菜)'라고 부르느냐며 공격하면서 우리김치를 중국 '파아오차이(泡菜)'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왜곡한다.

###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재한조선족

한중 간 마찰이 있을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듯 움츠러드는 집단은 재한조선족이다.

사드 문제가 불거지자 무역이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소량의 물건을 이엠에스(국제우편)로 보내는 것조차 제한받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앞서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불거졌던 한복논란으로 인해 재한조선족사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집단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어 더욱 억울하다.

2020년 총선 직전에 불거졌던 '조선족게이트'와 '차이나게이트'는 언론이 떠들고 보수정치인들이 부채질하여 한 때 재한조선족사회는 마치 죄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 움츠러들었다. 조선족게이트와 차이나게이트가 실체가 없는 조작이라는 결과가 뻔한 사살임에도 일부 보수 언론은 실체가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KBS는 한 때 조선족을 매도하는 '보이스피싱' 개그프로그램을 1년 넘게 방송하여 마치 조선족은 보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취급받았다. 한국 00교수는 술자리에서 재한조선족사회 00언론인한테 "당신네 조선족은 왜 보이스피싱을 많이 하냐?"고 말해 그 언론인은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하소연한다.

욕은 듣는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가령 대림동에 와보지 못한 한국 사람이 무서워서 오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과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보다 대림동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받는 모멸감 느낌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한중 간 마찰이 생기거나 한국인이 중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들으면 일차적으로 가장 불편한 집단은 재한조선족이다.





---

# 한중 수교 30주년 - 양국 실질적인 협력 추구

---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조교수

## 한중 수교 30주년 - 양국 실질적인 협력 추구

한·중은 1992년 8월 24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해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이래 한중관계는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지속적으로 격상돼 양국의 정치안보·경제무역·사회인문·지역·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실무적 협력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양국·양제(兩制)·양국 안보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하다. 향후 30년을 앞두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새로운 기로에 선 양국 전문가들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는 협력정치 의지가 강하고 협력기반이 두텁고 협력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기회에 직면해 있으며, 안정적 발전의 총체적 태세를 계속 유지하되 전략적 상호신뢰, 협력목표, 협력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실을 더욱 다져야 할 것이다.

### 한중 수교 30년 양국 실무적 협력의 성과는 매우 크다

수교 이후 양국은 '협력 동반자 관계'(1998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로 격상됐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한중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은 상호 신뢰, 공동화이(同同化異)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상생·공창 미래라는 큰 방향을 잡고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원국, 최대 해외투자대상국, 최대유학생원국, 최대 해외여행지국이 됐으며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 중 하나가 됐다"며 '4개 동반자 관계'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동반자 관계' '지역 평화에 힘쓰는 동반자 관계' '아시아를 함께 진흥하는 동반자 관계' '세계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내세웠다. 내정 불침 '제3자'에 대한 선명한 특색이 각 분야 각 층의 실무적 협력을 이끌어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중수교 30주년 맞아 양국정부 주요인사들 적극적인 소통

### 2022년 3월 25일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전화회담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영구 근린이자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얘기했다. 중국은 일관되게 중한 관계를 중시해 왔다.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한 관계는 전면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했고, 양국 산업은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었다. 중한 관계 발전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상호 존중과 정치적 신뢰 강화, 민간 우호의 증진, 중한 관계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다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한이 역내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번영을 위해 책임이 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지역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우호교류의 역사가 깊고, 수교 30년 동안 양국 각 분야의 협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국민에게 확실한 이점을 가져다주었다고 하였다. 한·중이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 국민의 행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중국 측과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민간 우호를 증진해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 2022년 5월 10일 중국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

5월 10일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서울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왕 부주석은 이날 이례적으로 다섯 가지 건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통상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견제할 때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라고 표현한다. 결국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맺은 약속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왕 부주석은 또 “시 주석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8년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 접견을 마치며,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2022년 5월 16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화상회담**

5월 16일 양국 외교장과 화상회담에서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 왕이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말한다. 중한은 이사할 수 없는 영구 근린이자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국과 중·한 관계를 전략적·전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수교 30년 동안 비바람을 딛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 관계는 양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역대 정부와 각 당이 노력해 온 경험을 소중하게 기릴 필요가 있다.

한국외교장관인 박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시 주석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와 바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부주석을 특별대표로 파견한 것에 대해 새 정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대중 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에 입각해 중국 측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양자 관계를 맺기 바란다. 한국 측은 시종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며 민간 교류를 촉진해 한·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 우리 측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높이 평가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중수교 30주년 양국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 추구의 기본

첫째는 상호존중을 견지하는 것이다. 한중은 시종일관 서로의 진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다. 일거수일투족을 존중하는 것이 이웃이 함께 사는 길이다.

둘째는 상생협력을 견지하는 것이다. 30년 동안 한중 교역액은 50배가 넘고 상호 투자도 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양측은 호혜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번영을 이룩했다.

셋째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각국이 노력한 결과 한반도는 총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양국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했다.

넷째는 개방적 포용이다. 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 협력의 새 장을 연 것은 30년 전이다. 오늘날에도 지역개방포용을 계속 유지하고, 신냉전 위험에 대비하며, 반대진영이 대결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한 것이다. 한국 속담에 '군자대도행(君子大道行)'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에 입각해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자고 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30년을 열어가야 한다.

###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한중 관계의 '4개 강화'를 다음 단계로 제시했다.

하나는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 신뢰를 다지는 것이다. 정상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층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대화 메커니즘, 원활하고 질 높은 정치·외교적 소통, 이해 증진, 협력 추진, 갈등 관리 등이다.

둘째는 상호 이익 협력을 강화해 발전시키고 진흥시키자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신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1+1 대 2'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디커플링' '사슬링'을 하는 소극적 경향에 반대해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는 인문 교류를 강화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인문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 양국 국민, 특히 청년들의 우호 증진과 오해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넷째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을 낙관하고, 한국과 함께 양국·아시아 및 신흥시장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격동의 시대에 안정·확실성을 불어넣고자 한다.

### **한중교류의 장에서 재한중국동포들 긍정적인 역할 기대**

한중수교 30년 동안 재한중국동포들의 양국에서 인문교류를 더 다양하게 펼치기를 위한 노력과 한중양국에서 가교역할을 기대한다. 재한중국동포사회에서 진행하는 민간차원에 교류 활동을 더 나아가 한국의 주류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더 발전하여 한중 양국 국민들의 민간교류에 앞장서서 우호 증진과 오해를 줄이는데도 아낌없는 노력을 하는걸 기대한다.







**MEMO**

**MEMO**